

기고



이성웅 /농협 구례교육원 교수

‘협동조합의 날’을 맞이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12조 1항에 「국가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하며,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일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지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여 세계의 균형적인 발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1923년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정한 날로 매년 7월 첫째 주 토요일을 기념한다.
이후 국제연합(UN)이 협동조합의 가치를 인정하여 1995년 특별 결의를 통해 국제 협동조합의 날을 제

정, 이날로부터 이전 일주일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기념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은 2012년 1월 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을 통해 ‘협동조합의 날’을 시행하고 있다.
2013년 처음 시행된 협동조합 주간에는 기획재정부의 주관하에 협동조합 기념식, 박람회 등 기념행사가 열린다.
‘협동’은 뜻을 같이 하거나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혜와 힘을 합하여 함께 일하며 공동의 성과를 올리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더해 ‘협동조합’은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는 소비자, 농·어민, 중소기업자 등이 각자의

생활이나 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만든 협력 조직이라고 사전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협동조합’의 정의를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창고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농민들이 농업생산성의 증진과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한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을 목적

으로 전국적으로 조직된 농가 생산업자의 협동 조직체이다.
주주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농업협동조합은 기본필요비용을 제외한 최소한의 필요 이익을 통해 가격을 낮게 설정하여 영리회사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조합원에게 최선의 가격으로 시장서비스를 제공하는다.
즉 원가경쟁을 통해 영리기업의 초과이윤 추구행위와 독과점 견제 효과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농민들의 편익 극대화를 위해 존재한다.
또한 개개인의 힘이 하나로 모여 공동행동을 취함으로써 사회적 강

자인 영리기업에 경쟁우위를 확보한다.
‘최근 쌀 가격 및 쌀 재고 관련 농민들이 힘들어 한다는 기사를 접하게 된다.
마음이 너무도 무겁다.
“우리나라가 돌연히 상공업의 나라로 변하여 하루 아침에 농업이 그 자취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이 변치 못할 생명창고의 열쇠는 의연히 지구상 어느 나라의 농민이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민의 세상은 무궁무진합니다” 윤봉길 의사의 ‘농민독본’ 내용이다.
협동조합의 날을 맞이하여 새삼 농민독본의 글귀가 가슴에 와 닿는다.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구급대원 폭언·폭행은 중대한 범죄다



고선희 /담양소방서/곡성119안전센터 소방장

이처럼 구급대원 폭행은 대부분 술에 취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술을 마셔서, 취해서”라는 이유로는 폭력을 정당화 할 수 없고 올해부터 주취여부가 감경요소가 되지 않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다. 또한 구급대원 폭행 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속하여 처벌 받을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죄질을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징역형 이상을 구형 받을 수 있어 처벌이 무거운 편이다. 소방서는 구급차 CCTV 및 웨어러블캠, 폭행 피해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 등으로 폭행피해 발생에 항상 대비하고 있지만, 구급대원 폭행을 막기 위해선 사회적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아무리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를 사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도 ‘소방공무원을 폭행해선 안 된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지 않는 한 폭언·폭행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건 대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폭행이나 폭언으로 종종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있다.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급대원을 폭행하게 된다면 당장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대처할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으며, 이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한다면 정당한 구호를 받아야 하는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5년 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한 해 평균 876건이고 폭행 피해자 90%이상 주취자로 나타났고 대부분 실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다.

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지금 이 시간 폭염 속에서도 구급대원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현

장을 누비고 있다. 폭염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119대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필요할 때다.

이제 여름은 폭염과의 전쟁이다



한선근 /보성소방서/홍교119안전센터 소방위

폭, 2021년 7월 1일(담양)이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여름철(6~8월) 평균 기온은 평년(1991~2020년) 23.7도에서 최근 10년(2012~2021년) 24.3도로 0.6도 상승하여 지속적인 상승 추세다. 이제 여름은 폭염과의 전쟁이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해마다 증가하여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우선 여름철에는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무더위와 관련된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한다. 가정에서는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2시~5시 사이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할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쓰자. 또한 탈진을 막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수분을 섭취해준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열사병 초기증상이 보인다면 119 등을 이용하여 즉시 병원을 내방한다.

폭염특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 2일 이상 지속 예상되거나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 2일 이상 지속 예상되거나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경보가 발령된다. 최근 2년(2020~2021) 폭염특보 시작일은 2020년 6월 4일(대구, 경

직장에서는 워크숍 또는 각종 야외 행사가 있을 시에는 취소한 후, 날씨가 선선할 때 진행하는 것이 좋다. 가능하다면 잠깐의 낮잠 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 직장 내에서도 꾸준히 수분을 섭취해준다. 폭염 발령 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외부에서 일하는 건설 현장이다. 휴식 시간은 짧게 자주 갖도록 하고, 수분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장시간 근무를 할 때 휴식 시간은 물론이고 밀착된 의복 착용을 금지하며 아이스팩 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자.

특히 노약자나 소아, 심장질환, 고혈압, 우울증, 순환장애 등으로 약을 먹는 사람 등 폭염에 취약한 사람은 무더운 환경에 혼자 남아있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농촌에 부모님을 두고 있는 자녀라면 폭염 피해가 없도록 건강관리에 유념하시라고 당부 전하라도 한 번쯤 해보는 게 어떨까 싶다. 아울러, 운동과 과다한 땀 배출 등으로 인한 열경련, 열사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소금물 섭취 등 대처요령을 사전에 숙지해 여름철 폭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기사제보 E-mail : honamnews@hanmail.net
호남매일 디지털신문
www.homae.co.kr
전화(062)363-8800 팩스(062)362-0078
호남매일 www.homae.co.kr
발행·편집인 고재방 주필 서길원 편집국장 최춘의
대표전화 (062)363-880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동 264-1번지)
사장실 (062) 363-0027 편집국장 (062) 363-8800
광고국 (062) 363-0005 정·경부 (062) 362-6116
편집국(FAX) (062) 362-0078 사회부 (062) 362-6226
서울취재본부 (02) 783-8117 문체부 (062) 362-6116
인쇄재판도프린트 (062) 943-0140 지역사회부 (062) 362-6226
구독료 연달 : 10,000원 /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한다

새 희망 새 언론 새 천년
푸른 언론의 길을 지향하는 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NEW AGE NEWSPAPER - THE HONAMMAEIL
호남매일
호남인과 함께 하는 신문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기사제보·독자 의견·TEL : (062) 363-8800 FAX : (062) 362-0078
광고문의 TEL (062) 363-0005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인터넷 참여 : http://www.homae.co.kr
E-mail : honamnews@hanmail.net honamaeil@naver.com
지국안내
총장 223-4123
무등 224-4188
동부 234-4235
화동 225-0651
광천 374-2120
화정 374-3713
금호 376-7153
쌍촌 371-9384
상무 381-5310
서부 651-0004
송암 362-4102
농성 362-4102
진월 671-7276
봉선 675-5530
중앙 521-5640
중흥 433-1503
양산 574-3745
문암 521-4270
오치 261-9461
문흥 261-9462
일곡 573-3200
동문 525-8994
두암 266-1920
첨단 971-1920
신창 955-0451
월곡 941-9174
송정리 010-5524-3638
지사안내
목포 010-8718-1234
순천 010-9656-1383
광양 010-9656-1383
나주 010-3644-7272
나주 010-3644-1309
담양 010-3602-3550
곡성 010-3647-6161
구례 010-8897-0053
보성 010-3626-4776
화순 010-2430-5055
영광 010-9860-5489
함평 010-5066-4708
장흥 010-5665-8354
신안 010-4217-9480
강진 010-3775-2369
장성 010-3610-7824
무안 010-9271-8517
여수 010-8587-2288
함평 010-4132-8080
영암 010-4604-3742
진도 010-8525-4567
해남 010-3471-6542
고흥 010-7175-3500
광산 010-7613-4320